

## 다 같이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해 나누고 보태다



30년간 꾸준히 나눔을 실천해 온 박무근 대표.

박무근 미광전업(주) 대표는 자신이 세운 원칙을 지키며 오로지 한 길을 고집스레 지켜왔다. 경북 군위의 가난한 농가에서 5남 2녀의 둘째로 태어나 한 기업의 경영인이 되기까지 분명 숏한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박무근 대표는 담담히 제 길을 걸어왔을 뿐이라 말한다.

“집안이 어려워서 중학교를 그만두고 돈을 벌기 위해 대구로 왔지요. 전업사에 취직해서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일을 배웠고요, 그렇게 십 년 넘게 일을 하다 보니 자그마한 회사를 차리게 되었고 다행히 오늘까지 잘 꾸려오고 있습니다.”

근면 성실한 데다 셈도 밝고 안목도 뛰어나 회사는 부침 없이 성장을 이어왔다. 일견 평범한 성공담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한 분야에서 40여 년 넘게 튼튼히 뿌리를 내리고 발전했다는 건 특별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박무근 대표는 여기에 한 가지 자신만의 약속을 더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이었다. 그는 한사코 기부나 후원이란 표현을 쓰지 않고 나눔이라 칭한다. 자신이 현재 가진 것은 오롯이 자신만의 힘으로만 얻은 것이 아니고 자신만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 꾸준히 나눠온 30년이란 긴 시간

“적어도 나처럼 가난해서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아이들은 없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시작한 일입니다. 5만 원, 10만 원 형편이 닿는 대로 모아서 나눴죠. 아이들을 돕다 보니 어르신들이 걱정되고 그렇게 하면서 조금씩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개인 회사에서 법인 회사가 되면서 나눔도 체계적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칙을 세워서 하자고 마음을 먹고 매달 직원 월급으로 나가는 비용을 계산해봤습니다. 그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돈을 따로 통장에 모으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100만 원 정도였는데 이제는 700만 원이 넘었지요. 이 나눔 통장이 벌써 23개가 됐습니다.”

박무근 대표는 30년 넘게 모은 만큼 나누며 마음의 크기를 키워왔다. 그 가운데 키다리 아저씨로 유명인사가 되기도 했다. 2012년 익명으로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1억 원을 전달한 것이 그 시작이었





30년간 박무근 대표가 모은 23개의 나눔 통장.

다. 2009년 고급 승용차를 구입했는데 좋기도 하면서 가슴 한켠이 헛헛하더라. 그러면서 ‘이렇게 좋은 차를 살 돈으로 남을 도와보자’라는 생각이 들었다. 매달 500만 원씩 적금을 들었고 24개월이 되자 그동안 모은 돈을 미련 없이 나누었다.

“익명으로 했던 건 부끄러웠기 때문입니다. 더 많이 나누고 사는 사람도 있는데 굳이 남들에게 알릴 일은 아니라 판단했습니다. 기다리 아저씨라 불러주니 고마울 따름입니다.”

박무근 대표의 선행은 많은 이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고 선한 영향력의 주인공이 되었다. 2012년부터 2020년까지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연말마다 익명으로 전달되는 거금은 소외된 이웃들에게 힘이 되었고, 대구에서 익명으로 크고 작은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2015년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한 남성이 대구 도심에서 800만 원을 뿌렸을 때 박무근 대표는 또 한 번 나눔의 손길을 내밀었다. 경찰과 주변 사람들이 나서서 급히 수습했지만, 500만 원은 결국 찾지 못했는데 박무근 대표가 익명으로 찾지 못한 금액만큼 남성의 가족들에게 전달했다. ‘돌아오지 못한 돈도 사정이 있겠지요’라는 메모와 함께 말이다.

“돈이 안 돌아온 거지, 세상 사람들이 등을 돌린 건 아니라는 걸 전하고 싶었습니다. 사는데 돈이 꼭 필요하지만 전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더 중요한 걸 놓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 시작이 반, 망설이지 말고 시작할 때

박무근 대표가 서울아산병원과 인연을 맺은 건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평소 감기 한 번 걸리지 않을 만큼 건강을 자신하고 있었는데, 정기적으로 받고 있던 건강검진에서 간에 이상징후를 발견하게 된 것이다. 다행히 서울아산병원에서 간암 치료를 받고 건강을 회복해 현재까지 잘 이어오고 있다. 예기치 못한 상황을 겪으며 그는 자신과 같은 간암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서울아산병원에 후원했다. 간암 예방과 치료에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힘을 보탰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많은 분들이 나눔을 하고 계시는데요, 저는 금액은 중요하지 않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신의 형편이 허락하는 선에서, 망설이지 말고 시작하는 게 중요한 거지요. 같이 사는 세상 아닙니까. 서로 나누고 보태면서 더불어 살아야죠.”

박무근 대표가 이렇게 오래도록 나눔을 실천할 수 있었던 건 가족들의 든든한 지지와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무뚝뚝한 경상도 남자이다 보니 가족들에게 자신의 계획을 차근차근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지는 못했다. 일단 저지르고 나중에 양해를 구했다. 기다리 아저씨로 불릴 때도 아내와 자녀들에게 미리 상의를 했던 건 아니었다. 그렇지만 아내는 언론에 소개된 익명의 기부자 메모를 보고선 이미 짐작하고 있었다. ‘먼저 이야기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자 아내는 그저 웃었다. 자녀들도 아버지의 선택과 판단에 무조건적인 신뢰를 보냈다.

“익명으로 기부를 할 때 가족들에게 비밀 유지를 부탁했습니다. 자랑할 일도 아니고 괜한 관심으로 오해를 받거나 부담이 될 수 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 차원에서 올해 이름을 공개하게 되었는데, 예나 지금이나 변한 건 없습니다. 저도 가족들도 하던 대로 하는 거지요.”

박무근 대표는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익명으로 10년간 10억 원을 기부하겠다는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고, 지난 2월 아내와 함께 2억 원이 넘는 금액을 전달했다.

“앞으로 언제까지 얼마나 더 나눔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나이가 칠십이 넘었으니 젊었을 때처럼 정확히 목표를 세우고 추진하긴 어렵겠지요. 다만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열심히 일하고 나누고 그러면서 살 겁니다. 그래야 모두 행복하지요.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인터뷰 내내 이게 이야깃거리가 되는지 모르겠다며 고개를 갸웃하는 박무근 대표. 그는 오늘도 내일도 한결같은 모습을 지킬 것이다. 누군가가 주목하던 그렇지 않던 사회에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하며 세상의 온도를 높이는 데 자신의 온 마음을 다할 예정이다. 

글 권주희